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SIN: 신조선가지수 138p, 중고선가지수 141p

Clarksons에 따르면, 신조선가지수는 138p(+1p, WoW), 중고선가지수는 141p(+1p, WoW)를 기록함. 지난주 중국 Hudong Zhonghua는 Evergreen선사로부터 24,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함. (Clarksons)

### 배 지을 자리가 없다

현재로서는 일본 조선업체들이 조기 인도 조건으로 신조선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많음. 한국은 올해 신조선을 대대적으로 수주했고, 중국은 해군함정 건조로 인도 슬롯이 완전 매진됨. (선박뉴스)

### US drillers add rigs for second week in a row

2018년이후 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 시추업체는 이번주 9개 굴착장치를 더해 총 470개의 장비를 갖춘. 오일, 가스 설비 각각 8개, 1개씩 더함. 캐나다는 24개 설비를 더해 총 117개 설비를 갖춘. (Upstream)

### 中, LNG 최대 수입국으로 등장

올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도됨. 중국의 1분기 LNG수입량은 +30% YoY 증가함. 중국의 수입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# 삼성중공업,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위한 주주총회 개최

삼성중공업은 내일(22일)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위한 주주총회를 열 것이라고 보도됨. 동사는 6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함. 액면가 5,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1,000원으로 감액하는 무상감자를 통해 발생하는 납입자본금 2조 5,000억원으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계획. (뉴스1)

### 대선조선, LNG추진 어업실습선 수주

대선조선이 경상국립대학교로부터 4,200톤급 LNG추진 어업 실습선 1척을 수주함. 선가는 약 450억원이고, 2023년 인도예정임. 대선조선은 올해 총 21척을 수주하였다고 보도됨. (선박뉴스)